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국 기업들 채용 규모 2021년 이래 가장 적어
- FinanceYahoo: 8월에 미국 기업들의 해고 건수 급증
- Bloomberg: 연준, '미 경제 활동이 정체되고 둔화한다'는 보고서 발표
- Reuters: 미 2분기 노동 생산성 상승했다
- Reuters: 8월 미 서비스 활동 안정적... 서비스 고용 증가율은 둔화

[미국 금융]

- Bloomberg: 월가 "연준의 점보컷은 내일 일자리 발표에 달렸다"
- Bloomberg: S&P 500, 기술주 랠리에도 불구하고 주춤
- JP모건: 달러 약세화... 약화 속도 빠르지 않다

[달러 전망과 한국 기업 웨비나 안내]

- Steptoe: Us and EU Legal Developments Affecting Asian Companies
- JP모건: Dollar diversification and de-dollarization

[물류]

- CNBC: 미 항만 노조, 10월 파업 예고

[주택]

- CNBC: 모기지 채용자 수요 작년보다 94% 증가

[원유]

- Bloomberg: 골드만 "AI가 향후 10년간 유가를 약화할 것"

[인공지능]

- Bloomberg: 뉴욕 연준 "AI가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바이든, US 스틸의 일본 기업 인수 막는다
- WSJ: AI 아이폰은 큰 수요 창출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Companies Add Fewest Number of Jobs Since 2021, ADP Data Show

미국 기업들 채용 규모 2021년 이래 가장 적어

- 8월 미 기업들이 2021년 초 이래로 가장 적은 숫자의 직원을 채용해 노동 시장이 계속 둔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8월 민간 일자리 숫자는 99만개 증가했다고 ADP 등은 오늘 목요일 발표했다. 이 숫자는 예상치를 밑돈 수치다.
- 현직에 계속 있으나 이직한 직원들의 봉급 인상률은 지난 2021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또 다른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7월 초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국 발표다.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숫자도 3개월 이래 가장 낮았다.

ADP Report Shows Pullback in Hiring

US companies added the fewest number of jobs since 2021 in August

| Sector | Monthly change in employment |
|--------------------------------|------------------------------|
| Education/health services | 29,000 |
| Construction | 27,000 |
| Financial activities | 18,000 |
| Information | -4,000 |
| Manufacturing | -8,000 |
| Professional/business services | -16,000 |

Source: ADP Research Institute

Bloomberg 기사

FinanceYahoo: Planned US layoffs surged in August, recruitment firm Challenger says

8월에 미국 기업들의 해고 건수 급증

- 8월에 미 기업들은 성장 전망이 어둡고 계속된 비용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술 부문의 감원이 주도하면서 5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의 해고가 이뤄졌다.
- 관련 기업 Challenger, Gray and Christmas에 따르면 미 기업들은 지난달에 7만5천8백91개의 일자리를 줄였는데 이는 7월의 해고 규모의 세배에 이르는 데다 지난 1년간 월간으로 비교할 때 최대 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인력 감축은 작년에 비해 3.7% 낮은 비율이다.
- 기업은 경제 둔화 가능성과 운영 비용 증가 등으로 여러 가지 압력을 받고 있다.

FinanceYahoo 기사

Bloomberg: Fed's Beige Book Shows Stagnant, Declining US Economic Activity

연준, '미 경제 활동이 정체되고 둔화한다'는 보고서 발표

- 최근 수 주 동안 미국 주요 지역 기업들을 방문해 조사한 이른바 연준의 베이지북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 경제 활동이 정체되거나 둔화하고 있다. 수요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 수준은 전반적으로 정체되거나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고되는 경우는 별로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부 회사들은 근무 시간을 줄이고 이미 채용 광고가 나간 일자리를 채우지 않거나 퇴직자를 충원하지 않고 있다. 경제 전망에 불확실성 때문에 직원들을 늘리고 있지 않는 것이다.
- 한편 같은 기간동안 물가와 임금은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Bloomberg 기사

Reuters: US second-quarter productivity revised higher

미 2분기 노동 생산성 상승했다

- 당초 2분기 생산성이 연율로 2.3%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최종적으로 2.5%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 목요일 연방노동통계국은 밝혔다.
- 한마디로 노동 비용이 줄어드는 가운데 인플레이 압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직원 한명당 생산성을 측정하는 비농가 생산성이 지난 2분기에 2.5%로 나타났다.
- 한편 1분기 생산성은 0.4% 증가했다. 단위 생산성에 대한 노동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단위당 노동 비용은 2분기에 0.4% 증가했다. 당초 0.9%에서 하향된 수치다.

Reuters 기사

Reuters: US service sector steady in August; employment cooling

8월 미 서비스 활동 안정적... 서비스 고용 증가율은 둔화

- 공급관리협회(ISM)의 오늘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서비스 부문 관련 미 비농가 구매자 관리 지수는 지난 7월의 51.4와 비교해 8월에 51.5로 나타나 별 변동이 없다.
- 50 이상이면 서비스 부문의 성장을 말하는데, 서비스 부문의 미 경제의 점유율은 3분의2 이상이다. 공급관리협회는 지수가 시간이 갈수록 49 이상을 유지하면 경제가 전반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다.

- 신규 주문 관련 ISM 지수는 7월의 52.4에서 53.0으로 증가했으며 서비스 고용은 7월의 51.1에서 50.2로 하락했다.
- 이번 보고서는 또한 7월의 소비자 지출이 건조해 작년보다는 완만한 속도지만 여전히 경제가 확장하고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 현재 실업률은 거의 3년 만에 최고치인 4.3%에 이른 상태다.

Reuters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Wall Street’s Big Bet on Jumbo Fed Cuts Hangs on US Job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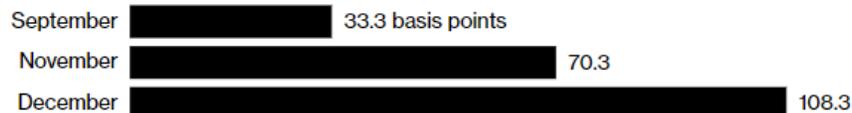
월가 “연준의 점보컷은 내일 일자리 발표에 달렸다”

- 시티그룹과 JP 모건 등이 연준의 이달 금리 인하 폭이 0.5%로 빅컷이 되겠다고 베팅한 가운데 내일 발표되는 일자리 보고서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이자율 스왑에 따르면 연준이 이달 17일부터 양일간 만나 회의 할 때 금리를 점보 컷으로 할 가능성은 35%라는 것. 그러나 0.25% 인하를 트레이더들은 선호하고 있으며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 이 같은 비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주 말까지 해결돼야 할 큰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해 내일 금요일 일자리 발표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 최근 연준의장은 금리 인하 시기와 규모를 결정할 때 노동시장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시장은 어제 수요일의 7월 일자리 약세 발표와 오늘 목요일 오전의 ADP 민간 일자리의 예상보다 낮은 일자리 성장 이후에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Traders See Chance of a Jumbo September US Interest Rate Cut

Traders price in more than a quarter-point Fed rate cut this month

■ Market-implied pricing of cumulative rate cuts



Source: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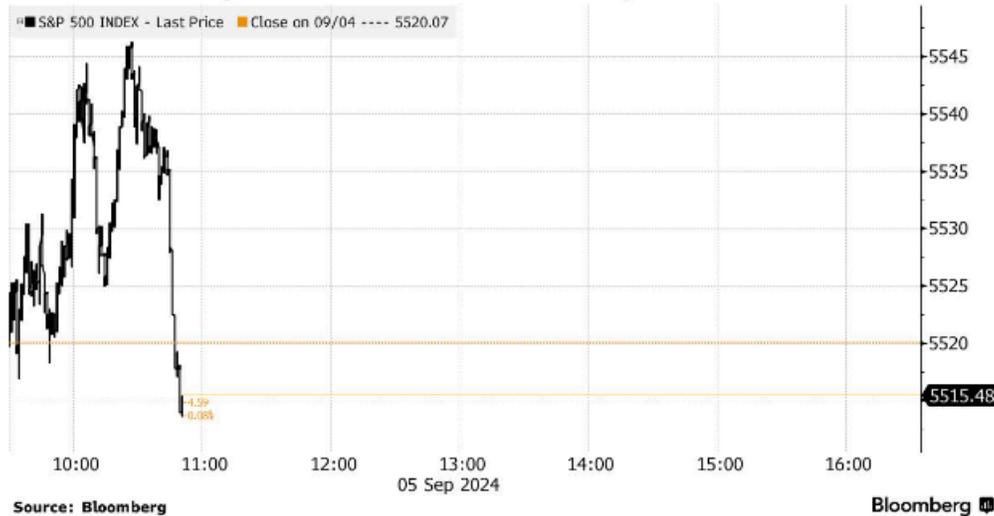
Bloomberg 기사

Bloomberg: S&P 500 Struggles to Hold Gains Despite Tech Rally: Markets Wrap

S&P 500, 기술주 랠리에도 불구하고 주춤

- 내일 일자리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오늘 상반된 경제 지표 발표로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오늘 목요일 정오 현재 S&P 500은 0.60% 하락하고(5,486.75) 나스닥도 0.18% 하락중이며(17,053.44) 10년물 국채 금리는 0.08% 상승한 3.75%로 거래중이다.
-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메그니피슨트 7’ 가운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S&P 500은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채권 시장도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트레이더들은 올해 연준이 1% 포인트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점보 사이즈의 인하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 오일 가격은 상승했는데 OPEC+가 2개월 동안 원유 생산을 증가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 한편 내일 주요한 미 일자리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미 서비스 활동은 완만하게 확장되는 반면에 미 기업들의 채용 증가는 줄고 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와 부합된 것으로 발표됐다.

S&P 500 Whipsaws Before US Jobs Report



Bloomberg 기사

JP 모건: Dollar's demise: Not so fast

달러 약세화... 약화 속도 빠르지 않다

- 달러 지배력의 의미 있는 약화는 아마 수십년이 걸릴 것이다. 글로벌 무역과 전반적인 외환보유고에서의 달러 점유율 하락을 탈 달러화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 글로벌 전체 부채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기록적인 규모의 부채 발행과 함께 상승 중이다.
- 달러로부터의 다변화는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데, 에너지 거래는 현재 달러 아닌 통화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머징 마켓의 소비자들과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중국에서의 탈 달러화는 과장되어 보이지만, 패턴이 바뀌면서 중국과 그 블록의 위안화를 통한 무역이 증가하고 있다.
- 관세를 광범위하고 높게 올리는 방안은 극단적이지만 않다면 달러 지배력을 위협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안은 달러 약세의 바람에 반하는 일이다.
- 탈 달러화를 야기하는 암호화폐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
- 디지털 등이 국내 금융 시스템을 빨리 바꾸는 가운데 기술에 의한 지급 자동화가 달러 헤게모니에 대한 가장 과소평가된 리스크일 것이다.
- 미국과 서구 세계의 전자 상거래 점유율이 30%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디지털 혁명의 선두를 달리고 뒤이어 인도가 따라 오면서 국제 금융 분열이 커지고 있다.

JP모건 기사

[웨비나 안내: 미국과 유럽의 법적 추세와 아시아 기업, 그리고 탈 달러 추세]

Step toe: US and EU Legal Developments Affecting Asian Companies



- Please join us **Tuesday, October 1** for the first installment of Step toe's new webinar series focused on US and EU regulatory, compliance and disputes issues relevant to companies in Asia. These webinars will provide an update on recent developments, and our thoughts on how these developments could impact Asian companies operating in and with the US and the EU.
- In the first webinar, lawyers from our Washington, DC and Brussels offices will discuss recent US and EU trade, trade policy, economic

sanctions, and antitrust developments, and the potential impact of the upcoming US presidential election in these areas.

[Click Here to Register](#)

- Event details: Monday, September 30, 8:00pm - 9:00pm EST
- Steptoe Speakers:
- **Lee Berger**, Partner in Steptoe's Antitrust Practice, and former Chief of the Civil Conduct Task Force, Antitrust Division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DOJ) (Washington, DC and San Francisco)
- **Eric Emerson**, Partner in Steptoe's International Trade and Regulatory Compliance group (Washington. DC)
- **Jack Hayes**, Partner in Steptoe's International Trade and Regulatory Compliance group (Washington, DC)
- **Byron Maniatis**, Of Counsel in Steptoe's International Trade and Regulatory Compliance group (Brussels)
- **Charles Whiddington**, Partner in Steptoe's Antitrust/Competition group (Brussels)

Dollar diversification and de-dollarization
JP 모건: Strategic Research Webinar

- **Thursday, September 12, 8:00am EST**
- Please join us for an webinar featuring **Brad Setser**, Whitney Shepardson Senior Fellow,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Mark Sobel**, US Chair of Official Monetary and Financial Institutions Forum
- The external speakers will be joined by J.P. Morgan's **Saad Siddiqui**, Emerging Markets Fixed Income Strategy
- **Patrick Locke**, Global FX Strategy
- The panel will be moderated by **Joyce Chang**, Chair of Global Research, J.P. Morgan
- This virtual meeting is open to clients of J.P. Morgan only and closed to all members of the press

Please register for this event by [clicking here](#)

[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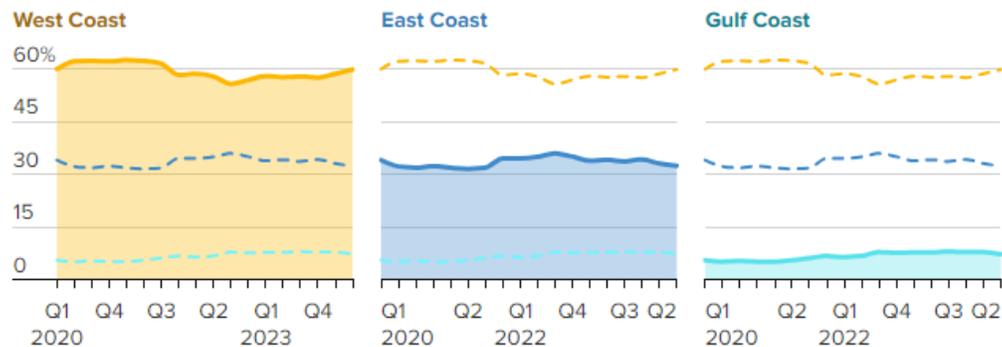
CNBC: ‘We’ll shut them down’: Labor union says it’s far apart from U.S. ports on new contract as Oct. 1 strike looms

미 항만 노조, 10월 파업 예고

- 미 항만노조(ILA) 지도부가 수요일과 목요일 노조 내 임금 규모 위원회와 미팅을 했다. 회사 측과 노조와의 계약은 9월 30일 끝난다. 회사 측인 USMX과의 협상은 7월에 노조가 APM 터미널과 Maersk가 자동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알게된 후 결렬됐다. 노조원들 없이 항만 일을 자동화 처리했다는 것이다.
- ILA 지도부는 임금 인상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0월 1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강력히 말했다. ILA 부회장 Dennis Daggett는 “우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ILA와 USMX는 연방 중재 및 조정 서비스 기관에 중재를 요청했다.
- 팬데믹 이후 자동화를 활용하려는 항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노동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Dennis Daggett는 자동화를 “암”이라고 표현하며,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 10월 파업 우려로 미국 화주들이 신학기와 연말연시 물품 수입 일정을 앞당기고 있다. 동부 항만과 걸프 항만 항구는 미국 전체 수입의 43%를 처리한다.

Share of imports arriving at U.S. ports

Q1 2020–Q2 2024



CNBC 기사

[주택]

CNBC: Mortgage refinance demand is 94% higher than a year ago, as interest rates fall again

모기지 재융자 수요 작년보다 94% 증가

- 이자율이 5주 연속 하락하면서 모기지 재융자 수요가 늘어났다. 모기지 은행 협회(Mortgage Bankers Association)에 따르면 지난주 총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주보다 1.6% 증가했다.
- 대출 잔액(76만6천550달러 이하)이 일치하는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의 평균 이자율은 6.44%에서 6.43%로 하락했다. 계약금 20% 대출의 경우 0.54%에서 0.56%로 상승했다. 주택 대출 재융자 신청은 한 주 동안 0.3% 감소했지만 1년 전보다는 94% 증가했다.
-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은 한 주 동안 3%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다. 여전히 높은 가격 때문에 여름 주택 판매는 부진했다.

CNBC 기사

[원유]

Bloomberg: AI Expected to Dampen Oil Prices Over Next Decade, Goldman Says
골드만 “AI가 향후 10년간 유가를 약화할 것”

- 골드만삭스 그룹은 셰일 생산량 증가가 석유 수요 증가를 능가하면서 인공지능이 향후 10년간 유가 하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동안 AI 덕분에 셰일 비용은 30% 감소하고, 석유 수요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예전에는 지진 조사 평가 등 대부분의 백 오피스 업무를 AI에 맡기고 시추 및 파쇄 작업을 주로 사람 손에 의존했던 행태와는 다르게 점차 주요한 업무를 새로운 기술로 대체하고 있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원유를 땅에서 생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인공지능]

Bloomberg: AI Adopters Aren't Slashing Jobs So Far, NY Fed Survey Shows
뉴욕 연준 “AI가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다”

- 뉴욕 연준에 따르면 AI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대량 해고를 하지 않고, 향후 몇 달 동안 순고용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8월 조사에 따르면 AI를 사용하는 뉴욕 서비스 산업 기업 중 약 5%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원을 줄였다고 답했다. AI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의 고용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AI를 사용하는 서비스 기업은 현재 25% 정도이며, 6개월 내 비중이 32%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체의 경우 16%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 사용 기업들은 직원의 1/4 ~ 1/3을 재교육하고 있다고 답했다.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1-in-10 service firms that have adopted AI have cut jobs in the last 6 months

| | Service Firms | Manufacturers |
|-------------------------------|---------------|---------------|
| Hire (past 6 months) | 4.9% | 0% |
| Hire (next 6 months) | 18.9 | 7 |
| Lay off (past 6 months) | 10.0 | 0 |
| Lay off (next 6 months) | 11.5 | 0 |
| Train/Retrain (past 6 months) | 23.8 | 31 |
| Train/Retrain (next 6 months) | 52.8 | 47 |

Sourc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Biden Prepares to Block \$14 Billion Steel Deal

바이든, US 스틸의 일본 기업 인수 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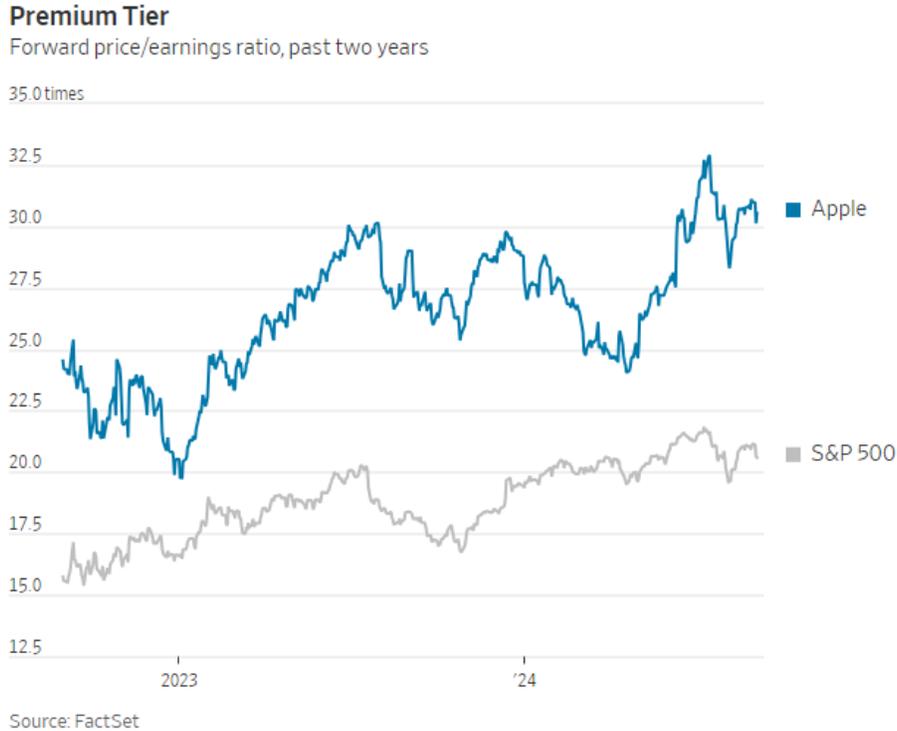
-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는 US스틸이 국내 소유 및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와 철강 노조도 일본제철과의 거래를 반대한다. US스틸은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며 국가 안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제철은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US스틸 인수를 시도하고 있다.
- US스틸 최고 경영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제철로의 매각을 막으면 제철소를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 David Burritt은 공장을 유지하려면 일본제철의 30억 달러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제조업 부문 약화로 인한 수요 부진으로 US스틸은 압박받고 있다. US스틸은 1901년부터 피츠버그의 기반이 되어온 기업이지만, 피츠버그에 있는 마지막 제철소를 폐쇄하고 본사를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11,417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1억3천820만 주 및 지방세를 내고 있다.

WSJ 기사

WSJ: Apple Needs Time to Be on Its Side for AI iPhones

AI 아이폰은 큰 수요 창출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

- 다음 주 선보일 새로운 아이폰은 애플에게 가장 중요한 제품이다. 아이폰은 애플 비즈니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 제품 라인이다.
- 새로운 아이폰은 AI기술을 탑재할 것이란 점에서 기대가 높다. 애플 주가는 지난 6개월 동안 약 25% 증가했다. Morgan Stanley의 Erick Woodring은 “억눌린 아이폰 수요를 풀고 교체 주기를 빠르게 할 열쇠”라고 말했다. 반면 UBS의 David Vogt는 “AI가 단기간에 상당한 수요를 만들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 또한 새로운 아이폰은 이달 말 출시되지만, 애플 AI는 10월까지 출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시된다 해도 ChatGPT와 애플의 Siri와의 통합은 올해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美고용둔화에 이달 '0.5%p 금리인하' 기대↑...가능성 40%대 중반

미 10년물 국채 금리 3.75%대로 내려...한때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
엔화 강세에 엔/달러 환율 143엔대...6일 나올 8월 실업률 주시

시장에서 이번 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개시를 기정사실화하며 인하 폭을 주시하는 가운데, 4일(현지시간) 고용시장 둔화세가 포착되자 0.5%포인트(빅컷)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75%대로 하락하고 한때 장단기 금리 역전도 해소됐으며, 엔/달러 환율은 143엔대로 떨어졌다.

이날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7월 구인 건수는 767만 건으로 전월 790만 건(810만 건에서 수정) 대비 23만 건 줄었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810만 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